



현대오일뱅크 ‘대기업 최초’로 매달 월급 1%를 이웃과 나눠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10월부터 대기업 최초로 매월 임직원 급여 1%를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외부 인사와 조합원 대표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각 사업분부와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인 운영기구가 재단 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사회공헌 기획 등을 담당한다. 1%나눔재단은 ▲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따뜻한 점심을 제

공하는 ‘1%나눔 진지방’ ▲ 저소득층에 동절기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유’ ▲ 저개발국가 대상 ‘해외 교육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급여 1% 나눔 외에도 공장이 있는 충남 대산에서 매년 10억원 규모의 지역 쌀을 수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다. 또 지역 어촌을 살리기 위해 삼길포 일대에 매년 2억원 상당의 우럭 중간 성어를 10년 넘게 방류해 오고 있다.

장학재단도 설립해 매년 1억원을 장학금으로 적립하고 5천만원은 학업 우수자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비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서산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매년 수능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문화공연과 동절기에 제설기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기부 비람은 주유소까지 퍼져 나갔다.

현대오일뱅크의 전국 직영 주유소에는 주유소 폴 사인 말고도 이색 현판이 하나씩 걸려 있다.

‘1% 나눔 주유소’임을 알리는 로고를 새긴 간판이다.

2014년부터 매달 주유소 순이익의 1%를 기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시작한 작은 노력이 점차 퍼져서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